

## 사법시험, 로스쿨 ... 상생방안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오시영 교수가 맡았으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교수가 기초발제를, 세명대학교 법학과 남선모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상지대학교 법학부 최병문 교수가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에 대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김동훈 교수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대한변협 기획이사(연구) 이민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제일 먼저 발표에 나선 남선모 교수는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 연구실을 침입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 국회의원 자제인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 청탁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사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시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는 구조적 문제로 향후 윤리교육 강화는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이 개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와 국민감사 제도를 통해 일부 특정 지위의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문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법조인의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학사에 대하여는 3년의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로스쿨은 비법학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해 전공의 특색을 살린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고, 법과대학 학부에서 충실히 교육받은 학생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훈 교수는 “로스쿨생들의 짧은 교육과정으로 인한 법학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연수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법과대학은 다양한 법률 관련 직역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법학전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는 로스쿨 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로스쿨 입학에서 판·검사 임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꼽았다. 사회제도가 공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가 사회를 유지하는 두 기둥이라 할 때 이러한 문제는 사회 그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돈을 벌겠다는 생각, 정성적 평가를 통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참석해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